

세계 설탕 수급 전망*

정승은 · 이해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면서

최근의 국제설탕수급은 신흥국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량의 증가와 기후 변화 등에 의한 주요 설탕생산국의 생산량의 변동으로 인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설탕가격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1년 11월에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설탕기구(International Sugar Organization, ISO) 세미나에서 언급된 주요국의 최근 설탕 수급동향 및 전망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EU에서는 2006년부터의 설탕제도개혁에 따라 설탕생산량 및 수출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 국제설탕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2011년 10월에 유럽위원회에서 의회에 제출된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CAP)개혁에 관한 제안에는 2015년 이후 설탕의 생산 할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설탕생산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국제설탕수급에 대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 본 내용은 국제설탕기구(ISO) 세미나 자료 및 LMC(영국시장조사기관) 보고자료 등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flaubert@krei.re.kr, 02-3299-4244).

영국조사기관인 LMC의 2012년 3월 5일 예측에 따르면, 2011/12년의 세계 설탕생산량은 1억7,680만 톤(조당환산, 전년대비 6.9% 증가)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최대 생산국 브라질은 2008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작의 정체, 지난해의 건조한 날씨, 2011/12년의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서리 등의 영향으로 사탕수수의 단위 수확량 및 당도가 저하되어 2005/06년 이래 감산이 예측되고 있다.

그림 1 주요국 및 지역의 설탕 수급



주: 연도는 각국의 설탕연도임.
자료: LMC 'Quarterly Statistical Update, March 2012'.

한편 인도, EU, 러시아 등 북반구의 주요생산국에서 증산이 예상되어 세계전체의 설탕생산량은 작년보다 어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량은 1억6,180만 톤(조당환산, 1.8% 감소)으로 예측되어 2011/12년 세계 설탕수급은 큰 폭으로 공급 과잉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기말재고율¹⁾은 작년보다 5.3포인트 상승한 32.8%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 기말재고량/소비량×100.

표 1 세계의 설탕수급

단위: 천 톤/조당환산

연도	기초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1980/81	21,783	88,558	27,858	88,773	28,565	20,861
1981/82	20,861	100,859	29,193	90,468	30,106	30,339
1982/83	30,339	96,724	28,029	93,424	29,343	32,326
1983/84	32,326	98,450	27,856	95,999	28,618	34,015
1984/85	34,015	100,001	26,884	97,223	27,937	35,700
1985/86	35,700	98,746	27,090	100,209	27,442	33,885
1986/87	33,885	102,868	27,843	105,059	28,437	31,100
1987/88	31,100	103,184	27,758	103,580	28,229	30,233
1988/89	30,233	104,567	26,950	93,879	28,402	39,468
1989/90	39,468	107,869	28,268	109,095	29,260	37,250
1990/91	37,250	114,178	26,893	109,314	28,265	40,742
1991/92	40,742	115,342	31,103	111,934	30,249	45,004
1992/93	45,004	110,793	28,710	111,394	29,787	43,320
1993/94	43,320	111,806	28,512	113,132	30,222	40,284
1994/95	40,284	116,713	32,130	114,078	32,384	42,665
1995/96	42,665	123,499	34,446	117,220	36,868	46,522
1996/97	46,522	126,298	34,382	119,774	37,339	50,090
1997/98	50,090	126,371	35,274	122,205	40,100	49,430
1998/99	49,430	134,390	36,930	124,498	39,861	56,391
1999/00	56,391	133,330	37,487	128,070	39,715	59,423
2000/01	59,423	131,473	38,549	131,310	40,874	57,260
2001/02	57,260	138,027	41,826	137,420	44,253	55,441
2002/03	55,441	149,704	42,818	140,327	45,563	62,074
2003/04	62,074	143,543	45,050	144,605	47,497	58,564
2004/05	58,564	144,003	49,164	147,244	50,592	63,895
2005/06	53,895	151,460	47,489	150,438	50,250	52,156
2006/07	52,156	164,668	46,683	156,226	49,873	57,407
2007/08	57,407	164,842	46,940	159,975	49,014	63,201
2008/09	63,201	150,440	47,821	161,318	49,436	50,707
2009/10	50,707	160,631	54,156	164,034	55,408	46,053
2010/11	46,053	165,396	53,599	164,799	54,974	45,276
2011/12	45,276	176,761	50,920	161,788	58,092	53,078

주1: 연도는 국제설탕연도(10월~다음해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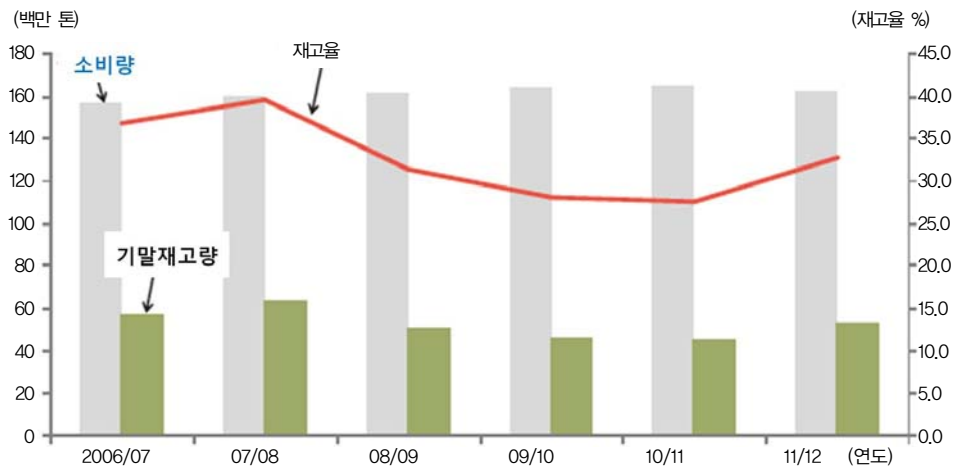
주2: 2010/11년의 수치는 추정치임. 2011/12년은 예측치임. 과거의 데이터는 국제설탕기구(ISO)의 통계에 근거하였음.

주3: 기말재고량의 공식 데이터와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량의 공식 데이터를 조정하였음.

주4: 기말재고량은 (소비재고량+생산량+수입량-소비량-수출량)임.

자료: LMC 'Quarterly Statistical Update, March 2012'.

그림 2 세계 설탕 재고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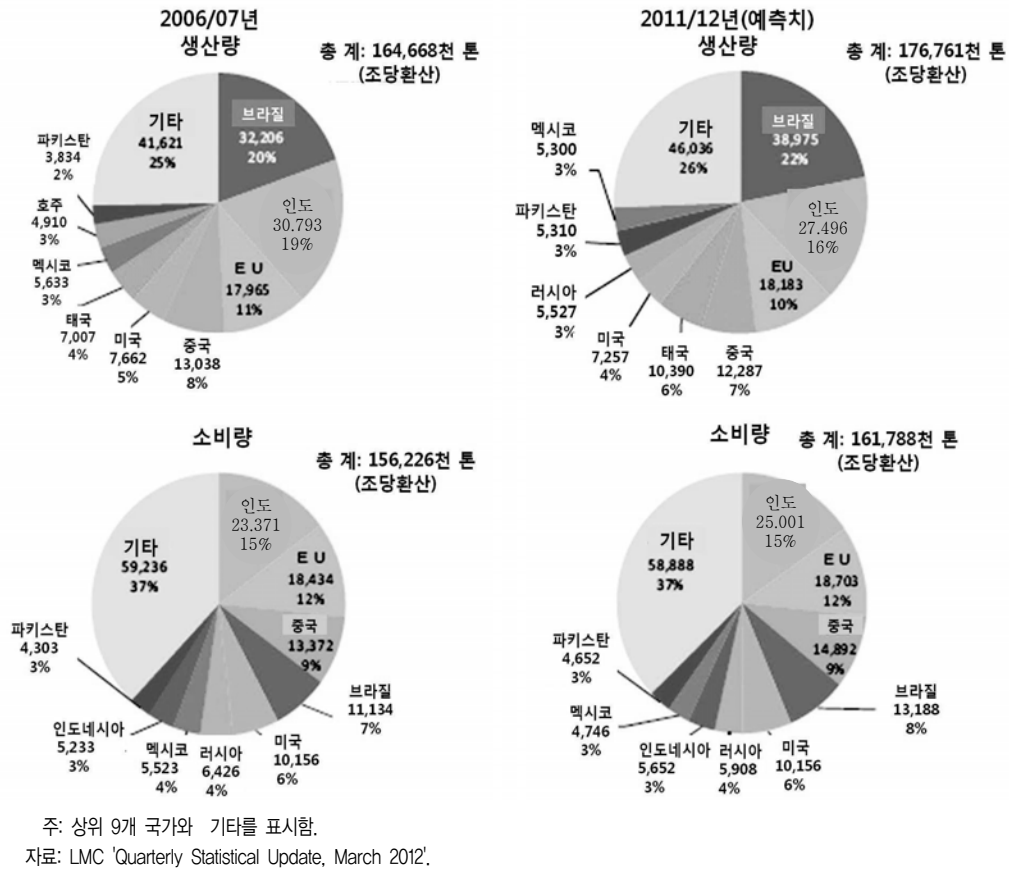
자료: LMC 'Quarterly Statistical Update, March 2012'.

2. 세계 설탕 수급 동향

2.1. 세계 설탕 생산량

2011/12년 세계 최대의 생산국은 브라질이며, 인도, EU, 중국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이 순위는 2006/07년도와 변함없다. 브라질은 세계의 수요증가를 배경으로 생산이 증가하였고, 세계생산의 약 20%를 차지한다. 인도는 정부의 가격정책이나 기상의 영향에 의해 경작되는 해에 따라서 생산량의 변동이 크다. 태국은 사탕수수의 경작 증가로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2011/12년에는 미국을 상회하였으며 중국의 뒤를 잇는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사탕무의 기록적인 풍작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미국 다음으로 생산국이 될 전망이다.

그림 3 국제 설탕 수급 구조의 변화(생산량 ·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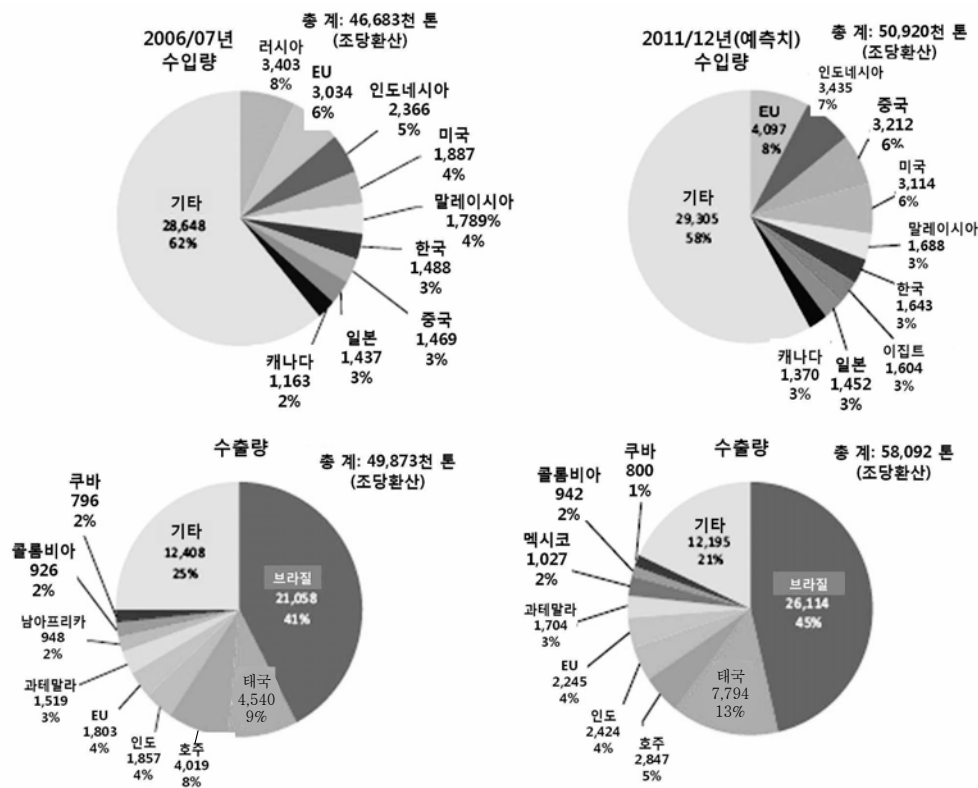
2.2. 세계 설탕 소비량

2011/12년 세계 최대의 소비국은 인도로 전망되며, 뒤를 이어 EU, 중국, 브라질, 미국, 러시아가 될 전망이다. 동 순위는 2006/07년과 변함없다.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는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소비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도 같은 추세이다. 한편 러시아는 인구감소로 소비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감미료 수요인 이성화당으로의 환원으로 인해 설탕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멕시코를 상회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뒤를 잇는 소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 세계 설탕 수입량

2011/12년 세계 최대의 수입지역은 EU가 될 전망이다. 2006/07년 최대 수입국이었던 러시아는 국내생산의 대폭적인 증가에 의해 수입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중국은 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1/12년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뒤를 이어 세계 제3위의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2008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하에서 멕시코와의 감미료 무역의 완전 자유화 실시의 영향으로 같은 나라에서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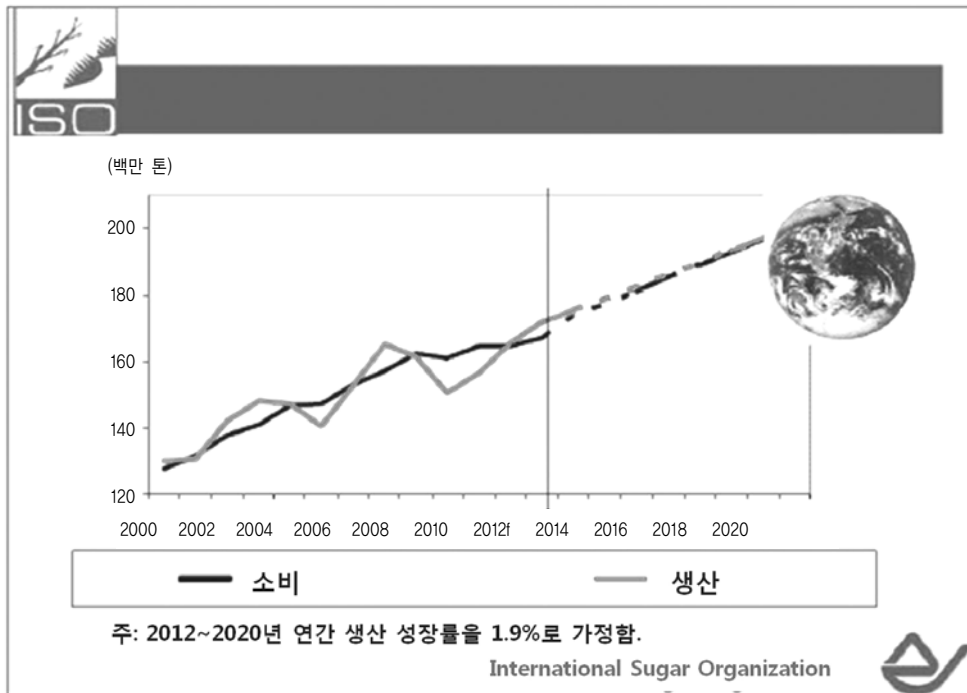
그림 4 국제 설탕 수급 구조의 변화(수출입량)



주: 상위 9개 국가와 기타를 표시함.

자료: LMC 'Quarterly Statistical Update, March 2012'.

그림 5 2020년까지의 세계 설탕 수급 예측



자료: ISO, ISO 세미나 2011 프레젠테이션 자료.

2.4. 세계 설탕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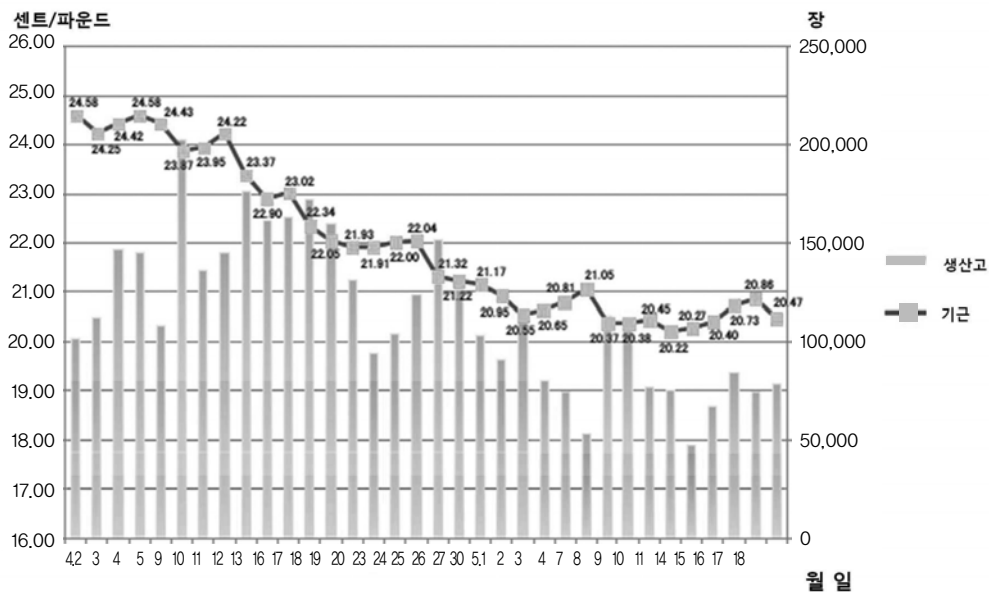
2011/12년 세계 최대의 수출국은 브라질이 될 전망이며 태국, 호주가 뒤를 이을 전망이다. 브라질은 세계의 수요증가를 배경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세계 수출의 5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태국은 생산 증가에 의해 수출 여력이 확대되었고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6/07년의 9%에서 13%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호주, 남아프리카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수출 여력이 저하되고 있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는 경작되는 해에 따라서 생산량의 변동이 큰 국가인데 풍작인 해에는 수출국이 되며, 흉작인 해에는 수입국이 되고 있다. 2011/12년에는 풍작이 예상되며 호주의 뒤를 잇는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3. 국제 가격 동향

3.1. 뉴욕 조당(粗糖) 시세 동향

4월 상순의 뉴욕 조당 선물시세²⁾는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수출국인 브라질의 올해 생산이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안정하여 1파운드당 24센트 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림 6 뉴욕 조당 선물 상장 동향(4/2~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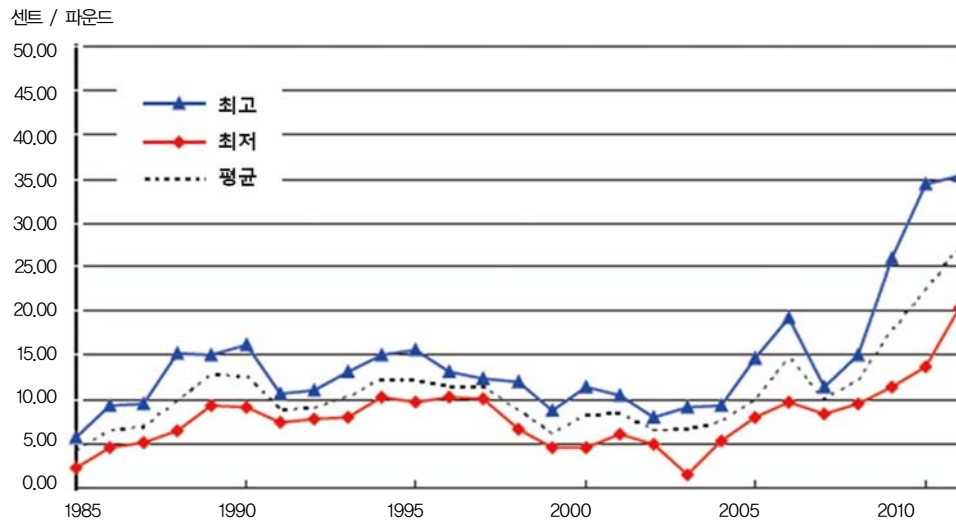


자료: 인터콘티넨탈취급소(ICE), 2012.

그러나 중순이후에는 세계 2위 수출국인 태국이나 세계 최대의 소비국인 인도에서 제당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풍작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브라질 식량공급공사(CONAB) 및 브라질 사탕수수산업협회(UNICA) 등 유관기관이 잇따라 브라질의 생산 증가 예측을 공표하면서 관련하여 시세는 순조롭게 바뀌었으며 월말에는 21.17센트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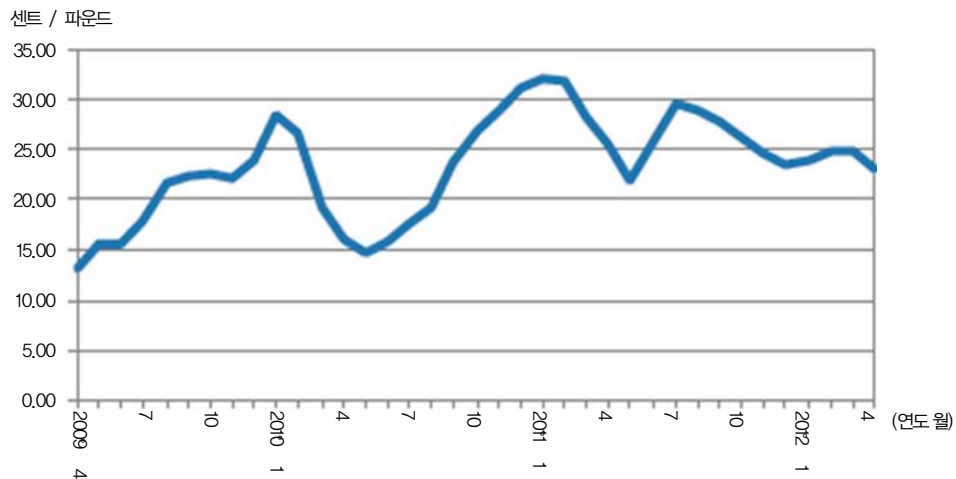
2) 기근(期近, 선물(先物) 거래에서 수도(受渡) 기일이 가까운 것) 5월에 한함.

그림 7 뉴욕 조당 선물 시세(기근)의 연도별 변화



자료: ICE, 2012.

그림 8 뉴욕 조당 선물 시세(기근) 월평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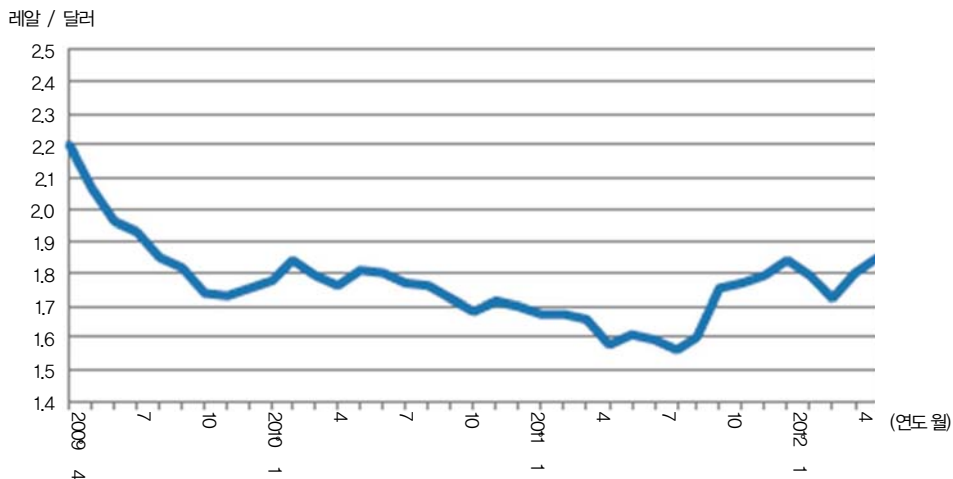
자료: ICE, 2012.

5월 이후의 시세³⁾는 지난달에 계속되어 온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강했던 한편, 레알이 대미 달러로 2009년 7월 이래 저가수준이 되었고 브라질의 수출 증가 예상으로

3) 기근 7월에 한함.

가격하락에 의한 수요증가의 기대나 7월의 라마단⁴⁾을 피한 중동, 북아프리카 등의 이슬람 제국에서 설탕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부터 보합세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일 시점의 시세는 1파운드당 20.47센트가 되었다.

그림 9 레알/달러 비율



자료: 미국연방준비은행(FRB, 2012).

그림 10 에탄올 가격



그림 11 원유가격



주: 브라질 상파울루주(州) 함수에탄올 가격.
자료: 상파울루대학농학부응용경제연구소(CEPEA).

자료: 미국에너지정보국(EIA)"Crude Oil(Light-Sweet, Cushing, Oklahoma)".

4) 이슬람교의 단식 월.

4. 세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의 동향

4.1. 브라질

4.1.1. 2012년 5월 전망

미국 농무부(USDA/FAS)에 의하면, 2012/13브라질 설탕년도 (4월~다음 해 3월)의 사탕수수 수확 면적은 900만ha (전년대비 1.2% 증가), 사탕수수 생산량은 5억6,500만 톤 (0.7% 증가)으로 모두 작년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탕수수의 설탕, 에탄올에 대한 비율은 48.6:51.4으로 작년의 48.1:51.9에 비해 설탕용 비율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설탕수요가 상승세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설탕 및 에탄올 공장은 설탕생산을 우선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탕수수의 발송 비율의 증가와 함께 사탕수수의 당도(糖度) 상승도 예상된다. 설탕생산량은 작년보다 다소 증가한 3,780만 톤 (조당환산, 4.6% 증가)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 사탕수수 산업협회(UNICA)에 의하면, 생산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남부에서는 이미 2012/13년의 수확이 개시되었다. 그런데 5월 15일까지의 사탕수수 수확량은 3,510만 톤 (전년 동기 대비 38.7% 감소), 설탕생산량은 160만 톤 (조당환산, 33.9% 감소), 에탄올 생산량은 13억1,950만 리터 (39.3% 감소)로 모두 지난해와 비교하여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남부에서 2012년 2월부터 3월 하순에 걸쳐 극심하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사탕수수의 생육이 늦어졌고 4월에는 계속된 강우로 수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설탕 및 에탄올 공장의 조업 시작이 예년에 비하여 늦어졌기 때문이다. 5월 15일까지 조업을 시작한 공장의 수는 235개 공장으로 지난 해 273개 공장에 비해 낮은 공장수를 기록하고 있다.

표 2 브라질의 설탕수급

단위: 천 톤/조당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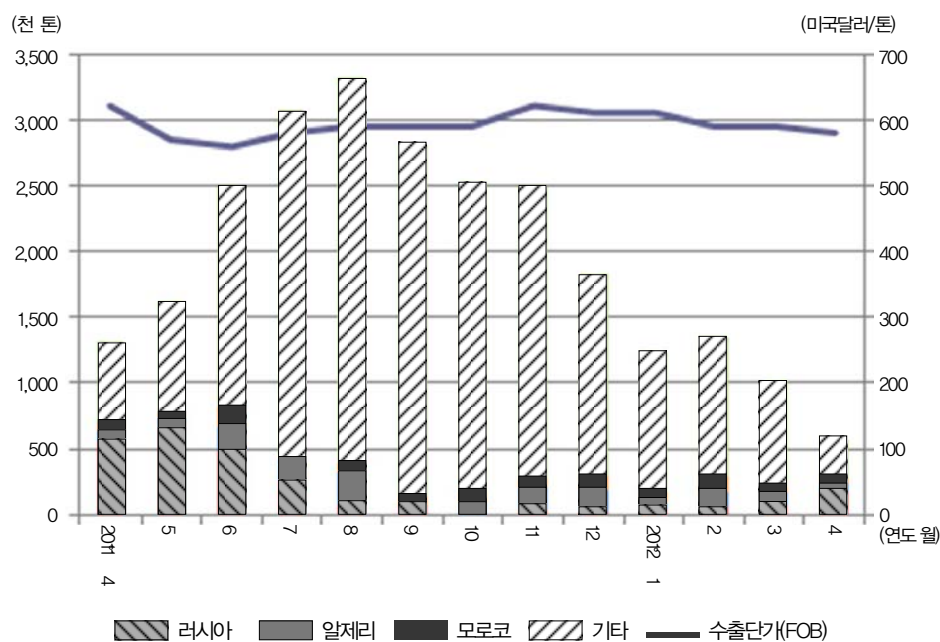
연도	2010/11	2011/12	2012/13
수확면적(천ha)	8,490	8,890	9,000
생산량	38,350	36,150	37,800
수입량	0	0	0
소비량	12,000	11,500	11,700
수출량	25,800	24,650	25,250

자료: USDA 'Gain Report, Brazil, Sugar Annual 2012'(2012.04.13).

4.1.2. 무역 및 정책 동향

2012/13년의 설탕소비량은 작년보다 약간 증가한 1,170만 톤 (조당환산, 전년 대비 1.7% 증가)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량은 증가가 예상되며 2,530만 톤 (조당환산, 2.4% 증가)으로 작년보다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2년4월의 조당 및 백당 수출량은 54만9,000톤으로 전년 같은 달의 130만3,000톤의 반 이하의 수준이었다. 수출량의 감소는 지난해의 생산 감소와 태국의 수출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보인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러시아, 알제리, 모로코이다.

그림 12 브라질의 조당 및 백당 수출 현황



주: 조당과 백당의 합계, 국가별 데이터는 직전월의 상위 3개국을 표시함.
 자료: GTI사(社) "Global Trade Atlas".

4.2. 인도

4.2.1. 2012년 5월 전망

미국 농무부(USDA/FAS)에 의하면, 2011/12인도 설탕년도 (10월~다음해 9월)의 사탕수수 수확 면적은 509만ha (전년대비3.0% 증가), 사탕수수 생산량은 3억4,790만 톤 (전

년 대비 1.6% 증가)로 모두 지난해를 상회할 전망이다. 설탕생산량은 사탕수수의 생산 증가와 함께 당도가 작년에 비해 높으며 또한 알코올 생산 등에 이용되는 ‘구루’⁵⁾용으로 적합한 사탕수수가 설탕용으로 유입되어 작년보다 상당 정도 증가하였고, 2,880만 톤(조당환산, 전년대비 8.5% 증가)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 제당협회(ISMA)에 따르면, 현재 최대산지인 마하라슈트라주(Maharashtra州)의 설탕생산량은 870만 톤(백당환산,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 국내 2위인 우타루·프라데슈주(Uttar Pradesh州)의 설탕생산량은 690만 톤(백당환산,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으로 모두 지난해를 상회하였다. 인도 전체의 설탕생산량은 2,500만 톤(백당환산,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제당은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USDA는 2012/13년의 사탕수수 수확 면적이 525만ha(전년 대비 3.1% 증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증가 요인은 사탕수수 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생산자의 의욕이 높아지고 있어 경작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몬순기의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면, 사탕수수 생산량은 3억6,500만 톤(전년 대비 4.9% 증가), 설탕생산량은 2,980만 톤(조당환산, 전년 대비 3.2% 증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인도의 설탕수급

단위: 천 톤/조당환산

연도	2010/11	2011/12	2012/13
수확면적(천ha)	4,940	5,090	5,250
생산량	26,574	28,830	29,750
수입량	405	0	0
소비량	23,500	25,500	26,500
수출량	3,903	2,600	2,500

자료: USDA 'Gain Report, India, Sugar Annual 2012'(2012.04.20).

4.2.2. 무역 및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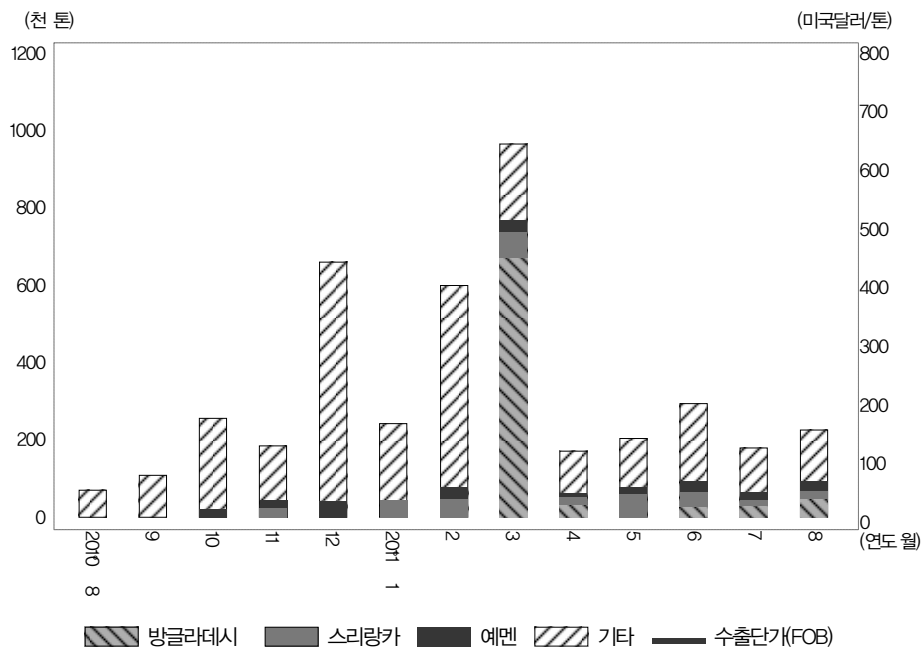
설탕수요의 약 60%는 음료 업체, 제빵 및 제과 업체 등 대량 사용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량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해 증가 추세에 있다. 2011/12년에는 생산 증가로 국내공급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비량이 2,550만 톤(조당환산, 전년 대비 8.5% 증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공급이 풍족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1/12년에 있어서 2회에 걸쳐 함께 200만 톤의 OGL방식⁶⁾에 의한 국

5) 인도의 전통적인 함밀당(含密糖).

산 원료로부터 추출된 설탕의 수출을 허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3월 하순에 OGL 방식에 의한 수출을 100만 톤 추가하는 것을 결정하였지만, 수출한도를 제당 공장에 할당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관계자간에서 발생한 대립으로 인하여 이 추가 허가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허가된 수출한도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평균 생산량에 근거하여 각 제당 공장에 할당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정부는 5월 상순에 설탕수출의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수출을 후원하는 것으로 제당 공장의 자금유통을 개선하고, 사탕수수 대금의 미지불을 해소하여 생산자의 사탕수수 생산 의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인도에서는 사탕수수 가격의 상승과 국내설탕가격의 하락으로 제당 공장 측이 원가하락을 유발하였고, 생산자에 대한 사탕수수 대금의 미지불액이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USDA는 4월 시점에서 2011/12년 수출량을 260만 톤 (조당환산, 전년 대비 33.4% 감

그림 13 인도의 조당 및 백당 수출 현황



주: 조당과 백당의 합계, 국가별 데이터는 직전월의 상위 3개국을 표시함.
 자료: GTI사(社) "Global Trade Atlas".

6) OGL (Open General Licence)란 등록된 업자에 대하여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하는 제도.

소)7)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수출 제한의 해제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012/13년 소비량은 같은 해 경제 성장률이 7.6%, 인구증가율이 1.8%일 것이라는 전망으로부터, 2,650만 톤 (조당환산, 전년 대비 3.9% 증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출량은 같은 해 생산량이 소비량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출량은 250만 톤 (조당환산, 전년 대비 3.8% 감소)으로 예측되며, 지난해에 이어 순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4.3. 중국

4.3.1. 2012년 5월 전망

중국의 설탕생산의 약 90%는 남부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북부의 사탕무에서 유래한 것이다. 미국 농무부(USDA/FAS)에 의하면, 2011/12중국 설탕년도 (10월~다음해 9월)의 사탕수수 수확 면적은 174만ha (전년 대비 3.2%증가)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확 면적의 증가와 함께 최대산지인 광서(廣西) 치완족 자치구를 중심으로 단위수확량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탕수수 생산량은 작년보다 약간 증가한 1억2,100만 톤 (전년 대비 9.2% 증가)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탕수수의 생산 증가로 사탕수수 당밀(廢糖蜜) 생산량은 1,120만 톤 (조당환산, 8.6% 증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탕무 생산지에서는 2011/12년의 제당(製糖)이 거의 종료되었다.

2012년의 사탕무 수확 면적은 26만ha (전년 대비 19.6% 증가)로 증가하여 단위 수확량도 지난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탕무 생산량은 1,160만 톤 (전년 대비 25.0% 증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탕무의 생산 증가로 사탕무당(糖)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110만 톤 (조당환산, 전년 대비 27.5% 증가)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전체의 설탕생산량은 1,230만 톤 (조당환산, 전년 대비 10.0% 증가),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2/13년의 사탕수수 수확 면적은 179만ha (전년 대비 2.9% 증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날씨가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면 사탕수수 생산량은 1억2,600만 톤 (전년 대비 4.1% 증가), 사탕수수 당밀(廢糖蜜) 생산량은 1,180만 톤 (조당환산, 전년 대비 5.1% 증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사탕무 수확 면적은 30만ha (전년 대비 14.5% 증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탕무 생산량은 1,340만 톤 (전년 대비 15.3% 증가), 사탕무당(糖) 생산량은 130만

7) 2011/12년 수출량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것은 전년도에는 국산원료에서 추출된 설탕과 함께 수입조당(원당)을 원료로 한 설탕 및 수입된 조당, 설탕의 여분이 재수출 되었기 때문이다.

톤 (조당환산, 전년 대비 15.0% 증가)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탕수수 및 사탕무 수확 면적의 증가 요인으로는 가격상승이나 제당 공장에 의한 생산 지원으로 경작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2/13년의 중국 전체의 설탕 생산량은 1,310만 톤 (조당환산, 전년 대비 6.0% 증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4 중국의 설탕 수급

단위: 천 톤/조당환산

연도	2010/11	2011/12	2012/13
사탕수수 수확면적(천ha)	1,686	1,740	1,790
사탕무 수확면적(천ha)	219	262	300
사탕수수당 생산량	10,336	11,224	11,800
사탕무당 생산량	863	1,100	1,265
생산량 (사탕수수당+사탕무당)	11,199	12,324	13,065
수입량	2,143	2,300	2,100
소비량	14,000	14,300	14,700
수출량	76	54	54

자료: USDA 'Gain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 Sugar Annual 2012'(2012.04.17).

표 5 주요 생산지의 사탕수수 가격의 변화

단위: 위안/톤

연도	광서자치구	운남성	광둥성	해남성
2008/09	275	231	245	268
2009/10	350	280	400-410	304
2010/11	492	375	540-550	525
2011/12	500	420	500	550

자료: USDA 'Gain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 Sugar Annual 2012'(2012.04.17).

표 6 주요 생산지 사탕무 가격의 변화

단위: 위안/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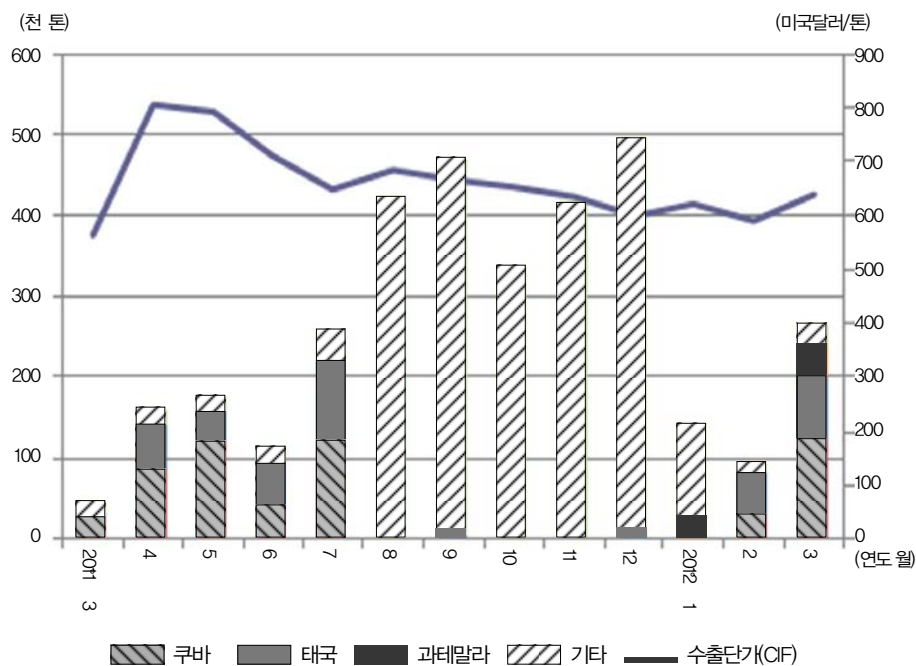
연도	신강자치구	흑룡강성	내몽고자치구
2008/09	300-330	320-370	320-340
2009/10	280	320-370	320-360
2010/11	353	400	390
2011/12	450	532	480-500

자료: USDA 'Gain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 Sugar Annual 2012'(2012.04.17).

4.3.2. 무역 및 정책 동향

2011/12년의 소비량은 인구증가와 소득 향상으로 1,430만 톤 (조당환산, 전년 대비 2.1% 증가)으로 증가하였고 지난해에 이어 국내생산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1/12년의 수입량은 230만 톤 (조당환산, 전년 대비 7.3% 증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4 중국의 조당 및 백당 수입 현황



주: 조당과 백당의 합계, 국가별 데이터는 직전월의 상위 3개국을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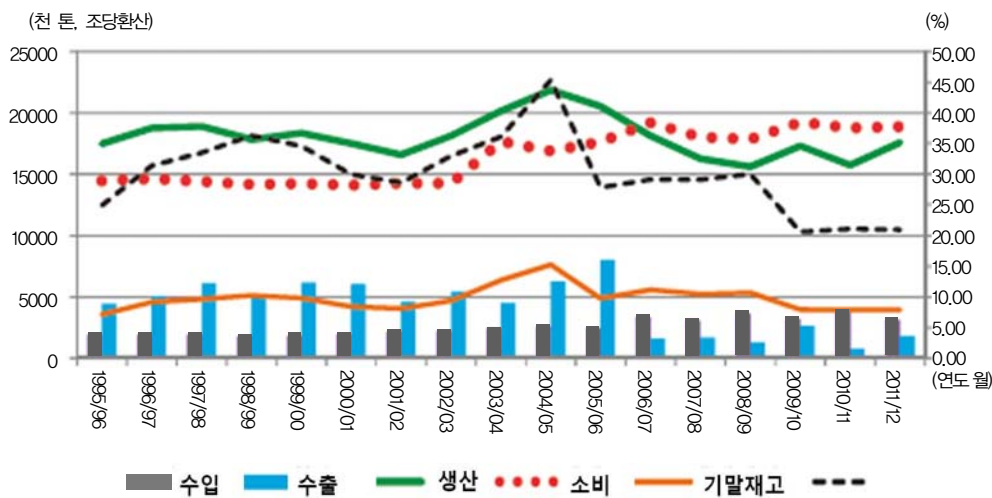
자료: GTI사(社) "Global Trade Atlas".

한편 2012년 3월의 조당 및 백당 수입량은 26만3,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약 6배로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쿠바, 태국, 과테말라이다. 2012/13년의 소비량은 1,470만 톤 (조당환산, 전년 대비 2.8% 증가)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수입량은 생산량의 증가로 210만 톤 (조당환산, 전년 대비 8.7% 감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4.4. EU의 설탕 수급 동향

EU의 2011/12년도 설탕생산량은 사탕무의 작황이 좋아 지난해보다 증가가 예상되지만, 현재의 설탕제도에서는 국내 소비 발송량이 정해져 있어, 생산할당을 초과하는 생산량은 수출량이나 다음 해 생산할당량으로 넘겨 공업용 원료가 되는 것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15 EU의 설탕 생산, 수출입, 소비, 기말재고, 재고율의 변화



주: 1995년~2003년 15개국, 2004년~2006년 25개국, 2007년~ 27개국.
자료: ISO, 2012.

한편, 수입량은 작년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설탕가격의 앙등으로 무관세로 수입되는 ACP⁸⁾ 및 LDC⁹⁾제국에서의 수입량이 상정되는 양¹⁰⁾을 밑돈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EU역내에서의 수급은 긴장상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10월 유럽위원회는 2015년 이후의 생산 할당 및 사탕무 최저 매입가격을 폐지하는 설탕제도개혁안을 공표하였다. 동 개혁으로 역내 생산량의 증가, 설탕가격의 저하가 예상되고 있어 생산할당제도의 폐지에 따른 WTO의 수출 제한 한도인 137만4,000 톤의 철폐로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8)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ssociates의 약자로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국가를 지칭함.
9) Least Developed Countries으로 개발도상국을 칭함.
10) 350만 톤, ACP제국의 수입 할당 수량.

4.4.1. 2015년 이후의 새로운 제안

유럽위원회는 2011년 10월 12일에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안을 공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현행 생산할당제도의 적용 기간 (2015년 9월) 종료 후, 사탕무당의 생산할당제도나 사탕무의 최저가격을 폐지하는 제안을 하였다. 경쟁 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설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금번 제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¹¹⁾에 따르면, 생산 할당을 폐지했을 경우에 사탕무의 생산은 보다 생산 효율이 높은 지역에 집약되어, 사탕무당(糖)의 생산량증가와 가격의 저하에 의한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이성화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생산 할당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탕무당과 동일하게 폐지안이 논의 되고 있다.

할당 등의 폐지에 대한 관계자의 견해, 각 업계의 생산 할당제도폐지 관련 제안에 대한 의견의 골자는 이하와 같다.

- (1) CEFS(유럽설탕제조사협회): 역내 설탕안정공급을 위한 생산 할당제도는 필요.
- (2) CIBE(유럽사탕무생산자연맹): 생산할당을 폐지하면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사탕무 산업은 큰 타격이 예상되며 사탕무 생산은 감소할 가능성 있음.
- (3) ESRA(유럽정제당업자협회): 정제당 산업과 사탕무당 산업과의 공평한 경쟁의 보증을 희망함.
- (4) CIUS(유럽설탕수요자위원회): 역내의 수급 궁핍 문제의 해결로 연결된다면 환영함.
- (5) ACP/LDP: 생산할당폐지는 자국의 설탕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함.

유럽에서의 사탕무당 제조에 관계되는 비용 수준이 브라질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로부터 일정한 국제 경쟁력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생산 증가가 가능해지는 것에 의한 장점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사탕무 생산자는 생산 할당이 철폐되는 것과 맞바꾸어 최저가격이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불안을 안고 있어 사탕무당 기업으로서는 생산자의 의견을 고려했을 경우, 생산할당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제당 기업에서는 비트당의 생산 할당이 철폐되었을 경우, ACP 및 LDC제국 이외로부터의 조당의 수입 관세가 현상의 그대로일 경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어, 유럽위원회의 정책 입안자나 정부에 대하여 관세의 철폐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설탕업계 자체 사탕무당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제당 기업은 사탕무당 기업의 주장이 유럽위원회에 의해 향후 정책에 반영되는 것에 대하여

11) Impact Assessment Report SEC (2011) 1153.

위기감을 갖고 있다. 사탕무당 기업, 정제당 기업도 이성화당의 생산할당폐지에 의하여 이성화당 수요가 증대하여 설탕수요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EU가맹국 중에는 생산할당제도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국가도 있다. 2011년 11월 14일에 개최된 EU농림수산장관이사회에서 헝가리가 실시한 2020년까지 현행의 생산할당제도를 계속하는 제안에 대하여, EU역내에서 사탕무당 생산량 제1위인 프랑스, 2위인 독일을 포함한 11개국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영국은 조당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럽위원회 제안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원래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안(案)에 찬성의 태도였지만 EU의 의장국인 입장에서 중립의 입장을 취하였다.

4.4.2. EU의 설탕 수급 전망

설탕생산과 역내의 설탕공급의 안정에는 생산할당제도 및 사탕무 최저가격의 유지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추측되지만, 유제품의 생산 할당이 2015년에 폐지되는 것이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설탕에 대해서만 생산할당제도가 남아 있을지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U는 2006년의 공동농업정책(CAP)개혁에 의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하여 세계의 설탕수급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2015년 이후의 개혁에 따라서는 다시 수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사탕무당의 생산할당의 폐지에 맞추어 이성화당의 생산할당도 폐지되는 안(案)이 진행되고 있다. 2011년 11월 영국 설탕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이성화당의 생산량이 현재의 생산 할당수량인 69만 톤에서 약 300만 톤의 설탕에 상당하는 양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설탕의 수급 균형에 영향을 줄 것도 우려되고 있다. EU의 설탕제도의 개혁 및 개혁에 따른 ACP제국에의 지원 체제는 세계의 설탕수급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EU의 설탕제도개혁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고문헌

EIA, "Crude Oil(Light-Sweet, Cushing, Oklahoma)".

GTI, "Global Trade Atlas".

LMC 'Quarterly Statistical Update, March 2012'.

USDA 'Gain Report, Brazil, Sugar Annual 2012'.

USDA 'Gain Report, China-Peoples Republic of, Sugar Annual 2012'.

USDA 'Gain Report, India, Sugar Annual 2012'.

ISO(International Sugar Organization), www.isosugar.org

http://www.maff.go.jp/j/kokusai/kokusei/kaigai_nogyo/k_syokuryo/h18/pdf/h18_europe_01.pdf

http://www.maff.go.jp/j/kokusai/kokusei/kaigai_nogyo/k_syokuryo/h16/pdf/h16_europe_08.pdf